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1월 1일(화) 총 4 매		
담당 부서	시립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	담당자	• 인천도시역사관장 이희인 • 담당자 신은영		☎ 850-6011 ☎ 850-601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로 미끄럼, 뽕뽕 토성, 은하수 봉 타고 80년대 도시 속 놀이터로
- 인천도시역사관 특별전 <놀이터를 부탁해> 개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도시역사관에서 가을 특별전 <놀이터를 부탁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0년대 도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에게 놀이터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거단지에 들어선 놀이터는 일정한 구획 안에 미끄럼틀, 뽕뽕이, 철봉, 정글짐 등 쇠 냄새 가득한 놀이시설물을 갖추고 있었다.

이번 전시는 1980년대 도시의 놀이터와 그 속에 있었던 놀이시설을 소재로 한 전시다. 놀이터를 무대로 당시 어린이들이 체험했던 꿈과 희망을 설치미술가와 협업해 예술적으로 재현했고, 어린이들의 로망을 담고 있었던 공간도 함께 꾸몄다.

전시장에서는 작가 콰이브 × 디자이너 이웅렬의 설치작품 ‘우주로 미끄럼’, ‘뽕뽕 토성’, ‘은하수 봉’, ‘테트리스짐+ 1·2·3’을

감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용도 가능하다. 여기에 놀이터 주변을 둘러싼 ‘인천문방구’, ‘도시슈퍼마켓’, ‘88오락실’을 둘러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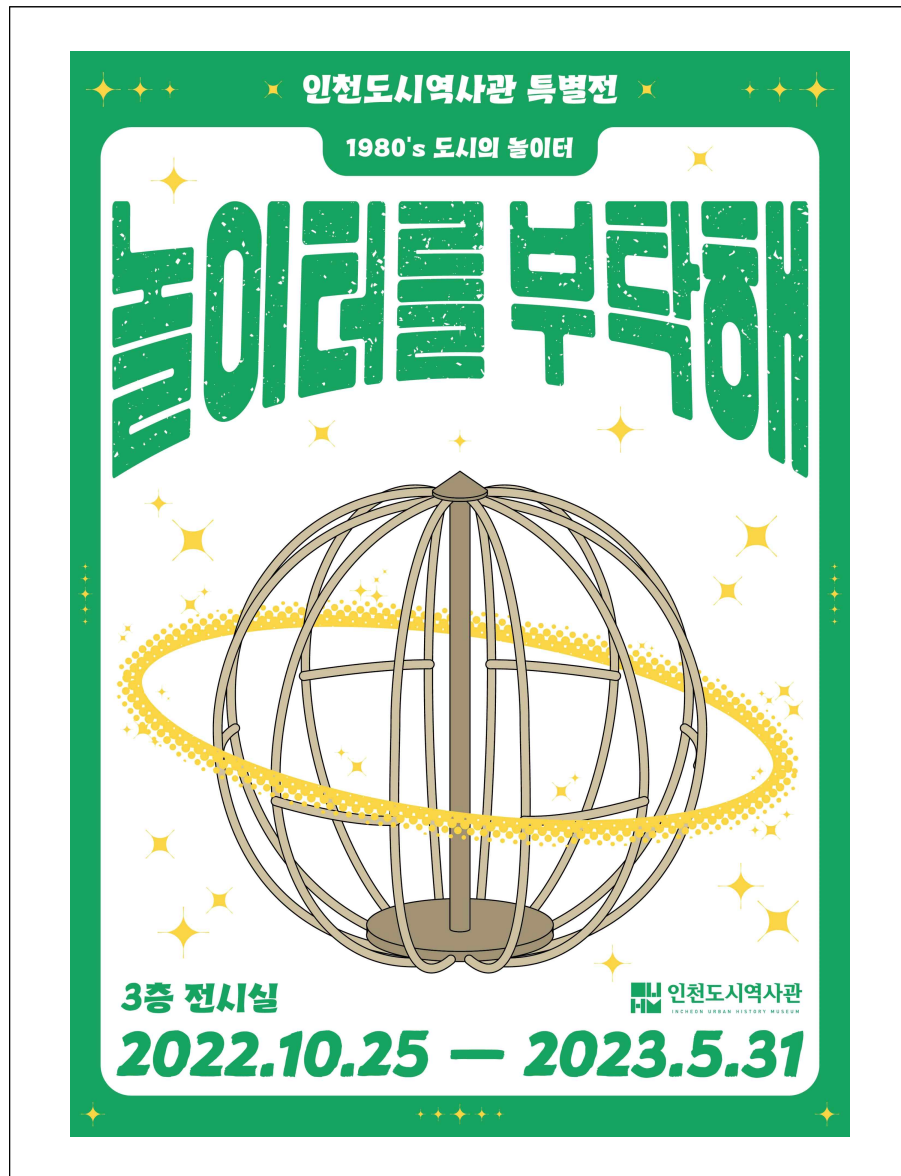
이희인 인천도시역사관 관장은 “이번 전시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80년대 놀이터를 경험한 세대들이 지난 시절을 추억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대에 대한 배려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내년 5월 말까지 송도신도시에 있는 인천도시역사관 3층 전시실에서 열리며 관람료는 무료다.

※ 관람 문의 ☎ 032-850-6000

<붙임> 관련 포스터 및 전시실 전경 사진

<붙임1> 인천도시역사관 특별전 <놀이터를 부탁해> 포스터



<붙임2> 인천도시역사관 특별전 <놀이터를 부탁해> 전시실 전경

